

KOSDAQ | 제약과생물공학

엔젠바이오 (354200)

NGS에서 플랫폼으로: 데이터, AI, 유통을 품은 구조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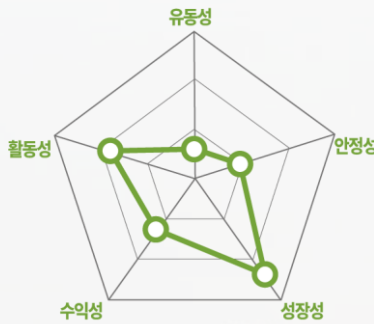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NGAS 2.0 고도화와 NGLIS의 대형병원 확산을 통해, 단순 진단키트 기업을 넘어 '병원 업무 흐름에 내재화된 정밀진단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며, 이는 구조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 중
- 서울아산병원과의 NGLIS 독점 기술이전 계약을 기점으로, 병원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G-Hub 구축을 통해 데이터와 AI 중심의 정밀의료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 확보
- 엔젠파마 인수를 통한 의약품 유통 사업 내재화로 연 400억 원 이상 규모의 안정적 매출원이 확보되며, 정밀진단 사업의 J-커브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 변동성을 완충할 수 있는 재무적 안전판을 마련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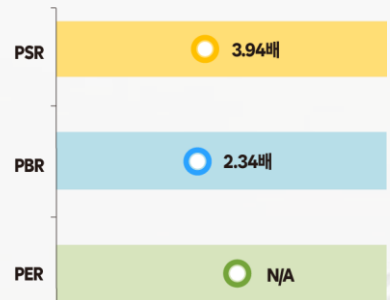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CS 분류 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3Q25 기준, Fnguide W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엔젠바이오 (354200)

Analyst 김승준edwardsj@kirs.or.kr

RA 이금민 km.lee@kirs.or.kr

KOSDAQ

제약과생물공학

정밀진단, 소프트웨어, 유통을 아우르는 복합 헬스케어 기업

동사는 2015년 설립된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암과 유전질환 영역을 중심으로 체외진단 패널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 중. 2020년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단순 진단키트 기업을 넘어 소프트웨어, 병원정보시스템, 데이터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형 정밀의료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 한편 2025년에는 의약품 도매사를 인수하여, 2026년 흡수합병을 통해 의약품 유통 사업을 내재화할 예정. 이를 통해 연 매출 4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안정적인 유통 매출을 확보하며, 정밀진단 중심의 단일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중.

병원 플랫폼-데이터-유통을 잇는 삼각 축, 구조적 성장 스토리

동사는 NGAS 2.0 고도화를 통해 AI 기반 변이 해석 기능을 강화하고, 병원 EMR과 연동되는 NGLIS 확산으로 검사 접수부터 분석과 리포트까지 전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병원 기반 정밀진단 생태계를 구축함. 여기에 NGLIS 도입 병원에서 생성되는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를 G-Hub에 축적해 병원과 제약사를 동시에 고객으로 하는 데이터 AI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하며,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플랫폼 가치가 커지는 구조를 지향. 동시에 '엔젠파마' 인수를 통해 대형병원 문진약국 중심의 안정적인 의약품 유통망을 내재화함으로써, 정밀진단 사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무구조를 보완하는 안정적 현금창출원을 확보.

2026년, 외형 급성장과 적자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환점

2026년을 기점으로 '고성장-적자 축소' 국면에 본격 진입할 전망. 2026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715억 원(+240.5% YoY)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엔젠파마' 유통 사업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처음 온기 반영되는 효과가 주도. 수익성 역시 뚜렷한 개선이 예상되며, 매출 급증에 따라 매출총이익률 개선 및 조직 슬림화와 효과로 판관비율 감소함에 따라 영업손실은 43억 원으로 전년(92억 원) 대비 절반 이상 축소되고, 지배주주 손실 역시 64억 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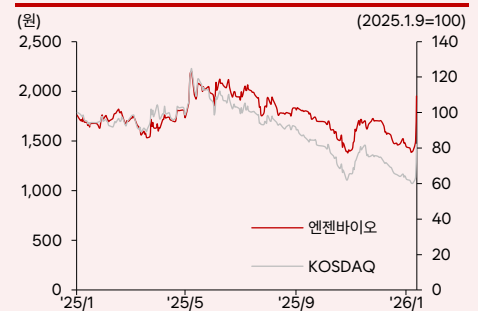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원)	110	44	57	210	715
YoY(%)	53.8	-60.5	30.8	269.0	240.5
영업이익(억원)	-86	-134	-161	-92	-43
OP 마진(%)	-78.1	-308.6	-282.5	-43.8	-6.0
지배주주순이익(억원)	-98	-128	-126	-110	-64
EPS(원)	-695	-892	-845	-487	-257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11.2	17.3	4.3	1.6	0.7
EV/EBITDA(배)	N/A	N/A	N/A	N/A	N/A
PBR(배)	4.9	4.7	1.9	2.4	5.5
ROE(%)	-33.0	-61.4	-75.9	-67.8	-52.8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20)	1,952원
52주 최고가	2,200원
52주 최저가	1,380원
KOSDAQ (1/20)	976.37p
자본금	198억원
시가총액	489억원
액면가	1,000원
발행주식수	25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5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억원
외국인지분율	15.6%
주요주주	에스에이치헬스케어투자1호조합 23.51%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36	-3.4	15.8
상대주가	15.9	-18.8	-13.7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기업 개요 및 연혁

**2015년 설립된 NGS 기반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암 유전질환용 체외진단 패널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성장해 왔으며, 2020년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해외 시장 확대와 엔젠파마 인수를
통한 의약품 유통 사업 진출로
중장기 성장 동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엔젠바이오는 2015년 10월 KT와 젠큐릭스의 합작으로 설립된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암 및 유전질환 영역을 중심으로 임상 적용에 특화된 NGS 체외진단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2020년 12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현재 대표이사는 김민식으로 2025년 6월 신규 선임되었으며, 순천향대학교 겸임교수 및 순천향중앙의료원 대외협력관 등을 역임한 의료 및 학계 출신으로,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밀의료 기술의 사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혈액암, 고형암 및 유전질환을 대상으로 한 NGS 기반 체외진단 패널과 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이다. 혈액암 진단용 HEMEaccuTest 유방&난소암 유전변이 진단용 BRCAaccuTest 등 주요 NGS 진단 패널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고 있으며,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생물정보학 분석 소프트웨어 NGeneAnalySys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군을 통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및 유럽 CE-IVD(Conformité Européenne In Vitro Diagnostic) 인증을 확보하며 기술력과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으며, COVID19 및 결핵 등 분자진단 키트 개발과 소비자 대상 직접유전자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서비스 진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시약(패널)과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형 NGS 플랫폼과 임상 적용에 최적화된 분석 기술에 있는데, 암 환자의 유전자 융합 변이를 기존 대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하는 자체 RNA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병원 및 진단검사 환경에서 요구되는 재현성과 해석 신뢰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동반진단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제약사 및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NGS 기반 정밀진단 결과를 표적항암제 처방과 연계하는 산업체, 대학, 병원 협력 사례를 통해 임상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정밀진단 시장에서는 체외진단 제품 제조 및 인허가 역량을 기반으로 병원 중심의 NGS 솔루션 공급에서 선도적인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NGS 패널의 보험급여 적용 범위 제한 등으로 국내 시장 성장 속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동사는 해외 시장 개척을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사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혈액암 등 정밀진단 제품 수출 레퍼런스를 이미 축적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엔젠파마'(구 누리팜)를 인수(지분 100%)하며 기존 진단 중심 사업에서 한 단계 확장된 사업 구조를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전문의약품 및 진단 관련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유통을 담당하는 신규 사업부문을 확보했으며, 병원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인 유통 매출 창출과 함께 진단 및 의약품을 아우르는 헬스케어 밸류체인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연혁

2015~2019	2020~2023	2024~
<p>2015.10.30 설립</p> <p>2015.11.10 기업부설연구소 인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p> <p>2016.03.09 벤처기업인증(연구개발기업)</p> <p>2016.08.19 대표이사 변경(정시영 → 최대철)</p> <p>2016.10.19 의료가기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인정(KGMP) - 체외진단용 의료가기용 시약류</p> <p>2016.11.28 ISO 9001:2008 인증</p> <p>2016.12.20 ISO 13485:2012 인증(시약류)</p> <p>2017.02.02 의료가기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인정(KGMP) - 체외진단용 의료가기(S/W포함)</p> <p>2017.06.22 BRCAccuTest & NGeneAnalySys CE-IVD 인증 취득</p> <p>2018.07.11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_특허청</p> <p>2018.07.23 GMP적합인정(시약)자체제조 및 SW품질 통합 변경</p> <p>2018.09.12 ISO 9001:2015 신규 인증</p> <p>2019.07.24 본점 주소지 이전</p> <p>2019.10.04 KS Q ISO 9001:2015 인증_SBCR(-2022.11)</p> <p>2019.12.11 예비유니콘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p>	<p>2020.02.02 의료가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GMP)</p> <p>2020.03.26 벤처기업 인증(벤처투자기업) (-2022.03)</p> <p>2020.04.28 KOLAS 시험기관 인정 (-2024.04)</p> <p>2020.05.01 액면분할 (5,000원 → 1,000원)</p> <p>2020.08.07 ISO/IEC 27001:2013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p> <p>2020.12.10 코스닥시장 상장(벤처기업부)</p> <p>2021.03.02 체외진단의료기기(BRCAccuTest PLUS) 수출용 제조허가 승인</p> <p>2021.05.10 체외진단의료기기(HLAaccuTest) 내수용 제조허가 승인</p> <p>2021.05.26 통합적 건강정보 식단 및 운동 추천 서비스 특허권 취득</p> <p>2021.05.26 염기 서열 분석에서의 오류 처리 방법 및 염기 서열 분석장치 특허권 취득</p> <p>2021.06.17 자회사 진메디카 흡수합병 종료</p> <p>2021.07.14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 권한 기반의 의료정보 제공 특허권 취득</p> <p>2021.08.23 체외진단 의료기기(BRCAccuTest PLUS) 내수용 제조허가 획득</p> <p>2021.11.23 체외진단 의료기기(HLAaccuTest All) 유럽 CE 인증 획득</p> <p>2022.01.24 자회사 '웰핏(Welfit) 설립</p> <p>2022.02.25 보건복지부 주관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 제3차 시험사업 통과</p> <p>2022.04.08 체외진단 의료기기(CNCOccuPanel™, MTBaccuPanel) CE-IVD 인증 취득</p> <p>2022.06.22 NGenePlex nCoV/FluA/B Detection kit 제조 수출용 허가 획득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p> <p>2022.09.01 제 3회차 전환사채 발행 (200억원)</p> <p>2023.05.02 정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하여 유아 성장 관련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법 특허권 취득</p> <p>2023.07.18 미국법인 'NGeneBio AF' 설립</p> <p>2023.11.15 미국법인 'NGeneBio USA Holdings' 설립</p>	<p>2024.03.21 미국법인 'NGeneBio USA Holdings' 유상증자 결정 (USD 3,000,000)</p> <p>2024.04.09 최대주주 변경 ((주)젠큐리스 → 주식회사 케이티)</p> <p>2024.04.22 미국법인 'NGeneBio USA Holdings' 유상증자 결정 (USD 2,700,000)</p> <p>2024.05.31 제 3회차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및 소각 (98억원)</p> <p>2024.06.14 제 4회차 전환사채 발행 (30억원)</p> <p>2024.09.13 제 3회차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및 소각 (11.5억원)</p> <p>2024.09.25 제 5회차 전환사채 발행 (25.1억원)</p> <p>2024.09.30 제3차배정 유상증자 납입 (20억원)</p> <p>2024.12.17 주주배정 후 유상증자 일반공모 납입 (110억원)</p> <p>2024.12.24 제 3회차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및 소각 (71.5억원)</p> <p>2024.12.24 본점 주소지 변경</p> <p>2025.01.01 NGS 원 정밀진단 제품 우크라이나 수출 개시(Genecode 협력)</p> <p>2025.02.01 두바이 MEDLAB 2025 참가 및 AI 기반 NGS 정밀진단 솔루션 상품 Prepare Labs와 중동아프리카 유통 계약 체결</p> <p>2025.03.01 미국법인 'NGeneBio AI, Inc' 영업 양도 결정 (19억원), 중단사업 결정</p> <p>2025.06.02 최대주주 변경 ((주)케이티 → 에스에이치헬스케어투자(호조합))</p> <p>2025.06.13 제3차배정 소액공모 납입 (10억원)</p> <p>2025.06.16 제 4회차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및 재매각 예정 (골유선 행사, 6억원)</p> <p>2025.06.27 제3차배정 유상증자 납입 (85억원)</p> <p>2025.06.30 대표이사 변경 (김민석으로 변경)</p> <p>2025.07.01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MOU</p> <p>2025.09.30 유형자산 양수 결정 (성수동 사무소 매입)</p> <p>2025.09.01 누리팜 지분 100% 인수</p> <p>2025.09.01 코스맥스바이오 MOU</p> <p>2025.09.01 자사 브랜드 Furrity, 살리콘투와 계약 체결</p> <p>2025.09.01 정부 'AI 데이터 바우처 사업' 최종 선정 (연세의료원과 공동)</p> <p>2025.10.01 제 6회차 전환사채 발행 (250억원)</p> <p>2025.11.01 자회사 엔젠피마 흡수합병 발표</p>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1. 정밀진단 사업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비중: 57.9%)

NGS 기반 정밀진단 시약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핵심 사업으로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했으며, 바이오기술&정보기술 융합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과 차세대 진단 기술로의 확장을 추진 중

엔젠바이오의 정밀진단 사업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 정밀의료 진단이 핵심으로, 당사는 2015년 설립 이후 NGS 기반 정밀진단용 시약과 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해 왔다. 유방암, 혈액암, 고형암 등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유전자 변이를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진단 패널과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유방 및 난소암 BRCA(Breast Cancer gene) 유전변이를 분석하는 BRCAccuTest Plus, 혈액암 등 혈액종양 유전자 변이를 대상으로 한 HEMEaccuTest, 다수의 고형암에서 표적치료제 및 면역항암제 관련 변이를 폭넓게 분석하는 ONCOaccuPanel 등이 있다. 이러한 체외진단 제품을 통해 환자별 맞춤 치료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제공하며, 당사의 정밀진단 솔루션은 임상 현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30여 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NGS 정밀진단 시장에서 선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분석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단시간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병원들의 NGS 검사 도입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밀진단 패널 제품군 1

<p>BRCAAccuTest™</p>  <p>암 종 유방암/선소암 검 체 암 조직 및 혈액 유전자 BRCA 1/2</p>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최초 NGS CE-IVD (17.6) • 한국 최초 식약처 NGS 인증 (17.12) • 글로벌 제품과 비교 우위, 복잡한 CNV 분석 가능 (장남성모병원 논문) • NGS 보형수가적용, 서울대병원 등 다수 병원 사용 • 프랑스, 폴란드, 베트남 수출 • P4 PAP저해제 동반진단 개발에 활용 (BRCAAccuTest Plus) 	<p>HEMIEAccuTest™</p>  <p>암 종 AML 등 혈액암 5종 검 체 혈액 유전자 100여개</p>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NGS CE-IVD 인증(18.40) • NGS 보형수가적용, 다수 병원 사용 • 대한 혈액암 학회 >혈액암 NGS 빅데이터 연구에 활용 • 싱가포르 TISH에 글로벌 회사 제품과 비교 시험하여 우수성 확인 및 공급 • 파로시아이비오 등 신약 개발사의 임상시험 및 동반진단 활용 	<p>HLAAccuTest™</p>  <p>사 용 목 골수이식 적합성 검사 적 혈액 검 체 HLA A, B, C 등11종 유전자</p>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11개좌위 동시 비교 • 5개 좌위 동시 비교 성능에 대하여 식약처 3등급 허가 취득 (21.5) • 유럽 CE-IVD 인증(21.11) • 공여자와 환자 HLA 적합도 자동 판단 분석 SW 제공 • HLA NGS 보형수가 적용됨 (21.5) > 대형 병원 시판 예정 • 관련 특허 3건 출원
---	--	---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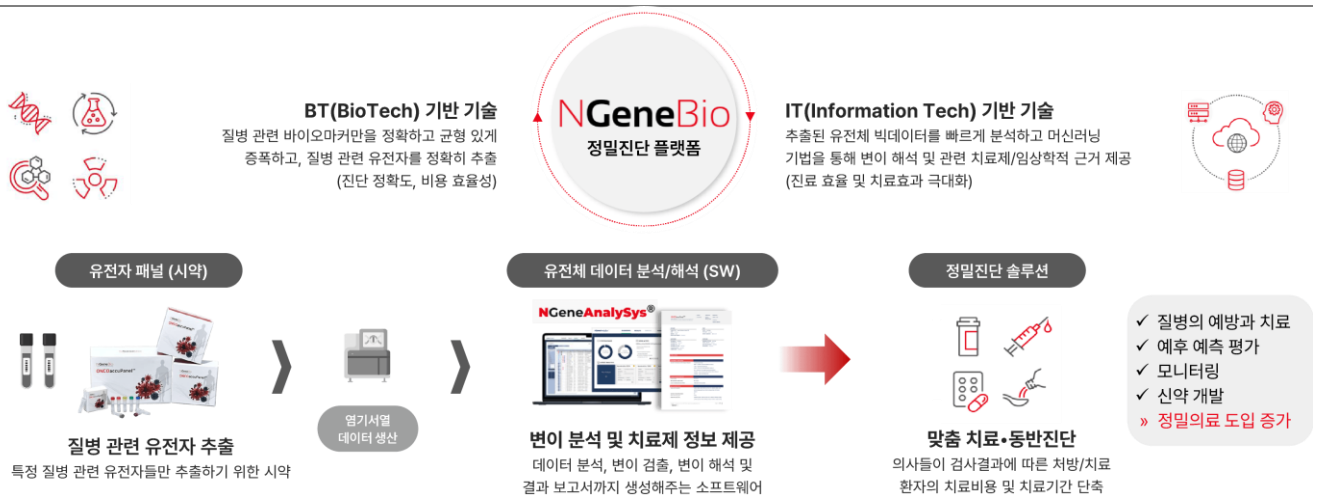
정밀진단 패널 제품군 2

<p>MTBaccuPanel™</p>  <p>암 종 폐결핵 검 체 객담 및 배양 검체 유전자 29개</p>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최초 유럽 CE-IVD 인증 (22.05) • 경쟁제품 대비 분석양역 확장 • 결핵연구원 성능시험 수행 결과 진단 정확도 100% • 심Oxford immunoTech(영) 사업협력 논의 	<p>SOLIDaccuTest™</p>  <p>암 종 위암, 폐암, 대장암 등 검 체 암 조직 (FFPE) 유전자 100여개 (RNA 500여개)</p>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NGS CE-IVD 인증(20.1) • RNA Fusion gene 동시 검사 • 고품질 분석 SW 동시 제공 • NGS 보형수가 적용, 다수 병원 사용 • 신약개발사의 임상시험에 활용 (SOLIDaccuTest DNA) • TRG 표적치료제 동반진단으로 활용 (SOLIDaccuTest RNA) 	<p>ONCOaccuPanel™</p>  <p>암 종 위암, 폐암, 대장암 등 검 체 암 조직 (FFPE) 유전자 300여개</p>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 병원 다나노프버 공동 개발한 NGS 패널을 license-in 하여 상용화 • 약 7,000명 실제 환자 대상 성능 확인 • 면역 치료제 효과예측을 위한 TMB, MSI 검사 기능 포함 • 보형수가적용, 기천강병원, 아산병원 등 다수 병원 사용 • 신약개발사 임상시험 원료 • 면역치료제 동반진단 분야 확대 예정
--	--	--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바이오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에 기반하는데, 유전체 해석 알고리즘과 EMR 병원시스템과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를 직접 연동 및 통합하는 정밀진단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연구 인력의 상당 부분을 바이오 및 IT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DNA와 RNA를 동시에 분석하는 암 정밀진단 패널을 상용화하며 NGS 진단의 정확도와 범용성을 제고했으며, 희귀 융합 유전자까지 단일 검사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적 차별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사의 NGS 정밀진단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아, 현재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베트남, 폴란드 등 다수 국가의 의료기관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사의 정밀진단 사업은 국내 NGS 정밀진단 분야 선도적 입지를 기반으로 향후 액체생검 등 차세대 진단 기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플랫폼을 고도화함으로써 정밀의료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게 해줄 동사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엔젠바이오 NGS기반 정밀진단 사업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엔젠파마 인수를 통해
의약품 유통 사업을 편입하며
정밀진단과 유통을 결합한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형
성장하고 현금흐름 안정성을 확보해
2026년 흑자전환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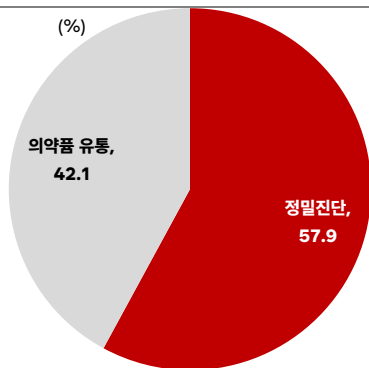
2. 의약품 등 유통 사업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비중: 42.1%)

엔젠바이오는 2025년부터 기존 정밀진단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헬스케어 유통까지 영역을 확장해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사는 2025년 9월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인 ‘엔젠파마’(구 누리팜)의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2026년 1분기 안으로 ‘엔젠파마’를 흡수합병해 조직과 사업을 완전히 통합할 계획이다. ‘엔젠파마’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과 대형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 약품을 공급해온 도매 유통 기업으로, 연평균 약 4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병원 조제부 및 약국에 대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물류 시스템과 장기간 거래를 통해 구축된 신뢰도 높은 영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업계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확보해 왔다. 당사는 이러한 의약품 유통 인프라를 정밀진단 사업과 결합함으로써 단일 진단 기업을 넘어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진단 사업이 보유한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유통 사업의 제품 공급망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상, 바이오, 헬스케어 전반에서 시너지 창출도 가능케한다. ‘엔젠파마’가 확보한 병원 대상 영업망을 활용해 당사의 NGS 진단 패널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보다 폭넓은 고객층에 공급할 수 있는 한편, 정밀진단 사업에서 개발된 신규 제품을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매출 기회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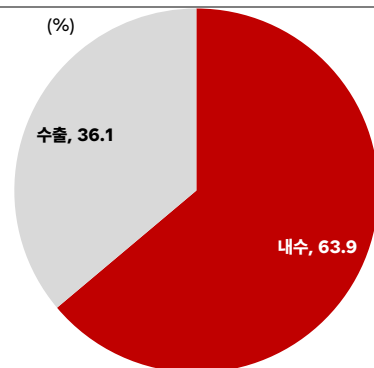
‘엔젠파마’ 인수 효과는 이미 실적 측면에서 가시화되고 있는데, 당사는 2025년 3분기 연결 매출액 54.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 정밀진단 부문의 성장에 더해 9월 한 달치 ‘엔젠파마’ 매출이 연결 실적에 반영된 결과다. 4분기부터는 엔젠파마의 분기 전체 실적이 온전히 반영되면서 외형 성장폭이 추가로 확대되고, 유통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의미 있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컸던 정밀진단 사업의 실적 구조를 안정적인 의약품 유통 매출로 보완함으로써 현금흐름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통합된 인프라를 활용해 병원 대상 진단 서비스 유통, 해외 진단 제품의 국내 유통 대행 등 신규 사업 기회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의약품 및 진단 유통 사업은 당사에게 지속 가능한 매출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정밀진단 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줄 주요 사업이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2025 Q3 누적 기준)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내수/수출 매출 비중(2025 Q3 누적 기준)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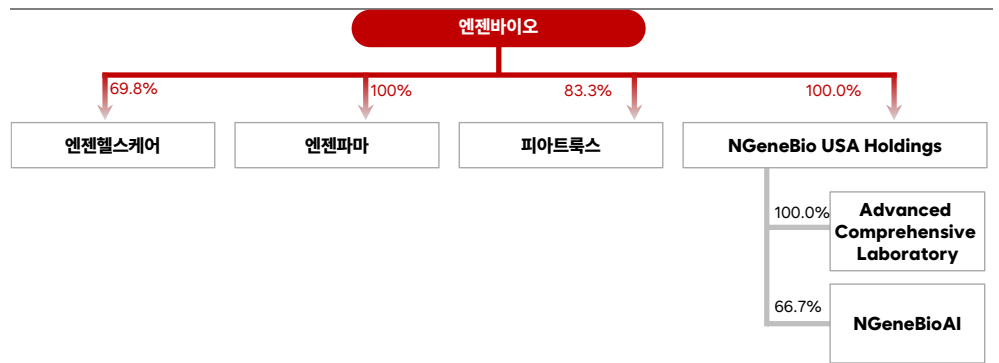
3 종속 기업

2025년 9월 말 기준 엔젠바이오의 종속 기업은 한국에 소재한 ‘엔젠헬스케어(구 웰핏)’, ‘엔젠파마(구 누리팜)’, ‘피아트룩스’와 미국에 소재한 ‘NGeneBio USA Holdings Inc.’, ‘Advanced Comprehensive Laboratory LLC’, ‘NGeneBioAI Inc.’가 있다. 당사는 국내 종속회사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방안을, 미국 종속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엔젠헬스케어’는 69.8%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건강 큐레이션 플랫폼 회사이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 솔루션 제공 및 건기식 제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향후 동사의 DTC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당사는 유통 사업으로의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2025년 3분기 중 ‘엔젠파마’ 지분 100%, ‘피아트룩스’ 지분 83.3%를 취득했다. 두 종속회사는 각각 의약품 유통,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NGeneBio USA Holdings’는 지분을 100%의 완전자회사로, 미국 지역 사업 및 자회사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이다. ‘Advanced Comprehensive Laboratory LLC(TOPLAB)’는 CLIA 인증 검사시설로, 2024년 미국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인수하며 종속회사로 편입되었다. 혈액 및 PCR 검사, 마약검사 등 다양한 임상검사를 제공하며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 뒤 NGS 검사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NGeneBioAI’는 AI 정밀진단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 회사이지만, 비용 효율화를 위해 당분기 매각 결정을 내렸다. 2025년 8월 야트리바이오에 운영사업일체를 양도한 뒤 그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3%)을 취득하며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종속 기업(2025.09.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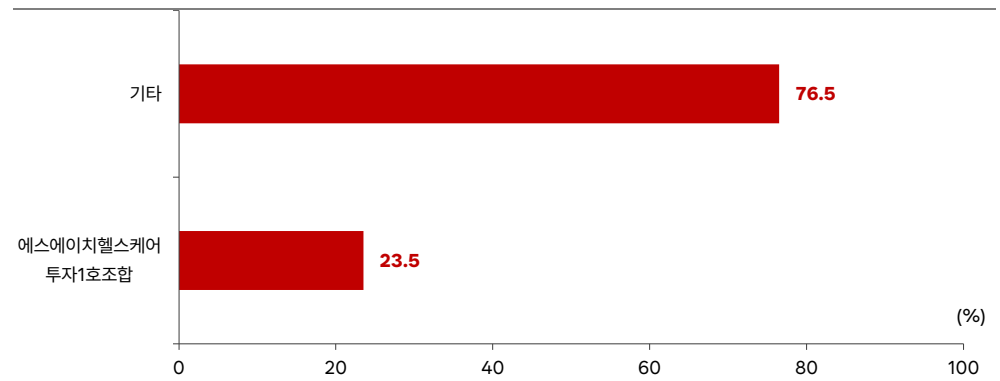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엔젠파마는 26년 1분기 내로 소규모 흡수합병 진행 예정

주주 구성

2025년 9월 말 기준 엔젠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에스에이치헬스케어투자1호조합'으로, 5,885,778주(지분율 23.5%)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2025년 6월 2일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확보한 120만주(지분율 6.1%)는 1년 뒤인 2026년 6월까지 의무보호예수 대상이다. 그 외 특수관계인 지분 및 자사주,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주 구성 (2025.09.30 기준)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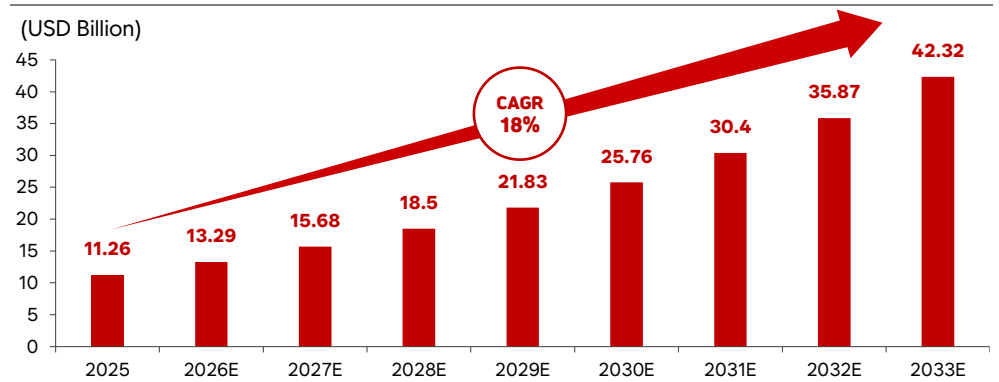
산업 현황

NGS 기반 정밀진단 산업

NGS 기반 정밀진단 산업은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암 치료 표준화와 동반진단, 액체생검, AI 기술 확산에 따라 글로벌 시장이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향후 헬스케어 산업 내 핵심 성장 분야로 자리잡을 전망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정밀진단 산업은 개인맞춤의료 수요 확대와 암 및 희귀질환 중심의 정밀 의학 패러다임 전환에 힘입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NGS 기반 정밀진단 시장은 2025년 약 113억 달러 규모에서 2033년 약 42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NGS 진단 분야는 정밀진단 시장의 핵심 세그먼트로, 특히 암 유전체 분석과 동반진단 영역에서 빠른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등 분자표적치료제 비중 확대, 임상 현장에서의 유전체 기반 치료 의사결정 표준화, 신약 개발 단계에서의 바이오마커 활용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NGS 기반 정밀진단 시장 규모



자료: GVR,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NGS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표적항암제 및 면역항암제 중심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환자별 치료 선택에 요구되는 바이오마커의 범위와 복잡도가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EGFR, ALK 등 소수의 유전자 변이를 순차적으로 검사하는 방식만으로도 임상 의사결정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SNV(Single Nucleotide Variant), InDel(Insertion/Deletion) 뿐 아니라 CNV(Copy Number Variation), 융합유전자(fusion), MSI(MicroSatellite Instability), TMB(Tumor Mutational Burden) 등 치료 반응을 좌우하는 분자 지표가 다층화되면서 단일 검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제한된 조직 검체로 최대한 많은 유전 정보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광범위 분자 프로파일링(broad molecular profiling)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도 진행성 및 전이성 암을 중심으로 패널 기반 NGS 검사의 임상적 필요성을 점차 강조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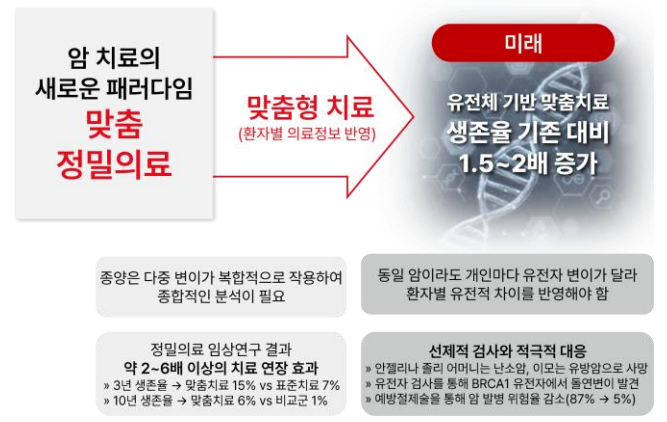
국내 시장 역시 정부 주도의 정밀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인데, 특히 암 유전체 패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병원 내 NGS 검사 인프라 구축 가속화가 시장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암 환자의 초기 진단 및 치료 전략 수립 시 NGS 검사가 표준 진료 경로에 점차 편입되고 있으며, 일부 고형암 및 혈액암에서는 치료 전 유전자 분석이 사실상 필수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PCR vs NGS 비교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전체 기반 맞춤형 정밀의료 치료 모델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술 트렌드 측면에서 NGS 기반 정밀진단은 단순 DNA 변이 분석을 넘어 RNA 분석, 융합유전자(fusion) 검출, 다중 오믹스 데이터 통합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단일 유전자 또는 제한된 유전자 패널을 통해 SNV, InDel 등 DNA 변이를 분석하는 방식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DNA와 RNA를 동시에 분석해 유전자 융합, 발현 이상, 스플라이싱 변이까지 포괄하는 통합 패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특히 NTRK, ALK, ROS1 등 융합유전자가 중요한 치료 타겟으로 부상하면서 임상적 가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한 번의 검사로 SNV, CNV, Indel, Fusion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패널이 등장하면서 검사 효율성과 임상 활용도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액체생검(Liquid Biopsy) 역시 정밀진단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혈액 내 순환종양DNA(ctDNA)를 NGS로 분석해 조직 생검 없이도 암의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환자 부담 감소, 반복 검사 용이성, 치료 반응 모니터링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Guardant Health(미국), Roche/Foundation Medicine(스위스) 등이 액체생검 기반 동반진단 및 암 진단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대상으로 한 액체생검 패널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향후 액체생검은 초기 진단뿐 아니라 미세잔존질환 MRD(Minimal Residual Disease) 모니터링, 재발 감시, 조기암 진단 영역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I 기반 유전체 해석 기술도 정밀진단 산업의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 NGS 검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변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로 해석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변이의 병리적 의미를 예측하고, 치료 반응 가능성을 추정하며, 신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희귀 변이나 임상 데이터가 제한적인 변이에 대해서도 AI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임상적 의미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더 나아가 유전체 데이터에 전사체, 단백질체, 대사체 정보를 결합하는 다중 오믹스 통합 분석도 연구 및 일부 임상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밀의료의 정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술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정밀진단 산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동반진단인데,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상당수 신약이 특정 바이오마커를 가진 환자에서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치료제와 진단을 함께 개발 및 승인하는 동반진단 모델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단일 유전자 검사 방식의 동반진단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NGS 기반 다중 유전자 패널을 활용해 한 번의 검사로 여러 치료제에 대한 적합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FDA 승인을 받은 FoundationOne 동반진단과 같은 종합 유전체 프로파일링 패널은 수백 개 유전자 변이를 한 번에 분석해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NGS 기반 동반진단은 임상시험 단계부터 활용되며, 신약 허가와 동시에 진단 솔루션이 시장에 출시되는 구조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경쟁 구도 측면에서는 글로벌 대형 기업과 지역 기반 전문 기업 간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장비 및 시퀀싱 플랫폼 분야에서는 Illumina(미국)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고, Thermo Fisher Scientific(미국)이 Ion Torrent 플랫폼과 다양한 진단 패널을 통해 뒤를 잇고 있다. 진단 서비스 및 동반진단 영역에서는 Roche/Foundation Medicine(미국), Guardant Health(미국), ArcherDx(Invitae)(미국), Agilent(미국)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임상 데이터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동반진단과 정밀진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니너스,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등 다수의 유전체 분석 및 정밀진단 기업이 활동 중이며, 각 사는 병원 네트워크, 데이터 축적 규모, 분석 소프트웨어 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내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 중동,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병행하고 있으며, CE-IVD, FDA, 현지 인증 확보 여부가 글로벌 확장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 역시 단순 시약 판매를 넘어 분석 소프트웨어, 검사 서비스, 동반진단 개발, 제약사와의 공동 연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부가가치 창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NGS 기반 정밀진단 산업은 기술 고도화, 임상 적용 확대, 신약 개발과의 연계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다. 암을 중심으로 한 정밀의료 수요 확대는 구조적이며, 유전체 기반 치료 의사결정이 의료 현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성장의 지속성도 높다. 다만 국가별 규제 강화, 보험 적용 범위, 진단 단가 하락 가능성 등은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혁신과 임상 가치 입증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과 안정적인 성장 기회가 동시에 제공되는 산업 구조라는 점에서, NGS 기반 정밀진단 산업은 향후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중요한 성장 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포인트

1 임상 유전체 데이터 기반 AI 정밀의료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

NGAS 2.0, 아산병원 NGLIS, G-Hub 구축을 통해 NGS 진단기업에서 AI와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며 중장기 가치 재평가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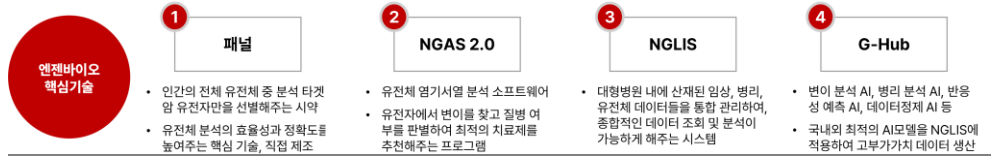
엔젠바이오는 국내 NGS 패널 및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으로, 정밀진단 플랫폼의 기술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 강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 시약 판매에 그치지 않고, 분석 소프트웨어와 병원 정보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NGS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자체 개발한 NGS 분석 소프트웨어 NGAS(NGeneAndlySys)는 최근 2.0 버전 고도화를 통해 AI 기반 분석 기능을 본격 도입하며 진단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개선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유전체 변이 해석 과정이 자동화 및 표준화되면서, 의료진이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치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진화는 하드웨어 및 시약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경쟁우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며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사용 횟수에 비례하여 과금되는 구독 요금제를 확대하며 매출 실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동사는 서울아산병원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유전체정보관리시스템 NGLIS(NGene LIS)를 독점 기술이전 받아 병원 전산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확보했다. NGLIS는 병원 EMR 시스템과 NGS 분석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동해, 검사 의뢰부터 분석,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및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통해 수작업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검사 프로세스를 표준화함으로써 대형병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NGS 검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DNA와 RNA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웹 기반 맞춤형 검사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유일한 통합형 병원용 NGS 운영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암센터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NGLIS는 수익 원대 구축 비용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시스템으로, **병원 전산망과 깊이 연동되는 특성상 일단 도입되면 타 시스템으로 교체가 쉽지 않기에, 이에 따라 병원 단위의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는 동사에게 높은 전환비용을 기반으로 한 견고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사는 이러한 병원 기반 데이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 진단기업을 넘어 AI 기반 유전체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임상과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 관리 및 분석하는 플랫폼인 'G-Hub'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G-Hub'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이터 허브로, 향후 유전자 변이 해석을 지원하는 AI 모델을 시작으로, 임상시험 피험자 매칭,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 예측, 예후 예측 모델 등 정밀의료 영역 전반으로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동사는 NGLIS가 도입된 병원에서 생성되는 실제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비식별화 및 표준화해 'G-Hub'에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병원에는 연구와 진료 지원용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약/바이오 기업에는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수익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NGS사업 성장 로드맵

엔젠바이오 핵심기술의 집약체 **G-Hub** 구축을 통한 AI 데이터 플랫폼기업으로 도약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러한 전략은 NGS 진단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AI 및 정밀의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 Tempus AI(미국)의 사업 모델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Tempus AI가 병원과 제약사를 동시에 고객으로 확보하며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확장해온 사례는, 동사의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이미 NGS 패널 개발 역량, 병원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데이터 자산이 축적될수록 플랫폼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NGAS 2.0을 통한 AI 기반 분석 고도화, 아산병원 독점 기술이전 기반의 NGLIS 확산, 그리고 G-Hub 구축을 통한 데이터 및 AI 플랫폼 확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단순 진단기업을 넘어 정밀의료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병원 중심의 안정적인 솔루션 매출 확대를,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와 플랫폼 전략은 동사의 본업인 NGS 정밀진단 사업의 성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가치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 투자 포인트이다.

G-Hub 구축을 통한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 계획

“한국형 Tempus AI”로의 도약 로드맵

Phase 1 : 암 병원 대상 NGLIS 구축 확산	Phase 2 : G-Hub 구축, AI 모델 탑재	Phase 3 : 데이터 라이선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패널과 NGAS를 사용 중인 국내외 고객, Lock-in 된 대형병원에 NGLIS 시스템 구축 3년 내 상급대형병원 10곳에 NGLIS 구축 목표 NGLIS 시스템 구축의 대가로 병원이 보유한 EMR, 임상, 병리 데이터 접근 권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병원에 구축한 NGLIS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G-Hub 구축 AI 모델을 활용하여 플랫폼 데이터 분석 및 생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 변이의 판별 정확도 개선 병리 이미지만으로 유전자 변이 판별 항암제에 대한 환자 반응성 예측 SI가 학습하기 좋도록 데이터 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G-Hub에 누적된 데이터를 병원 및 제약사에 판매 제약사가 특정 질병 환자들의 치료 결과, 약물 반응, 유전자 변이 데이터 연구 목적으로 구매 제약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조건에 딱 맞는 환자를 G-Hub 환자정보에서 탐색 인종마다 유전자 변이 양상이 달라, 글로벌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한국인 약물 반응 데이터 수요 존재

자료: 엔젠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엔젠파마 흡수합병을 통해 연 400억 원 규모의 방어적 유통 사업을 내재화하며 현금흐름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정밀진단 본업의 성장 과정에서 수익 구조를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의약품 유통 내재화로 안정성 강화: 엔젠파마 인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동사는 2025년 의약품 도매사 '누리팜'을 인수한 이후 사명을 '엔젠파마'로 변경하고, 2026년 1분기 안으로 자회사 '엔젠파마'를 흡수합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약 4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유통 사업을 완전히 내재화하며, 정밀진단 중심이던 사업 구조를 의료 유통까지 확장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엔젠파마'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인근에 위치한 25개 문전약국을 포함해 안정적인 거래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처방전 기반 매출 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방어적 사업 특성**을 갖는다. 전문의약품은 법정 상한가 제도 하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매출총이익률이 mid-single(%)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이며, 이는 동사 입장에서 변동성이 큰 정밀진단 사업의 실적을 보완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본업의 J-커브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변동성을 완화하고, **흑자전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엔젠파마'의 완전 자회사화 및 흡수합병은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돼 재무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이며, 합병 이후에는 관리와 지원 조직 통합을 통해 중복 인력을 줄이고, 운영 자원 일원화를 통해 고정비 구조를 슬림화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엔젠파마'의 연간 고정비는 10억 원 언저리 수준으로 비교적 낮아,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비용 증가 폭이 제한적인 구조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 확대 시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의약품 유통 사업 특성상 약국이 대금을 통상 2~3개월 후 결제하는 구조로 운전자본 부담이 큰 편이나, **'엔젠파마'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대형 문전 약국들의 매출채권의 신용도가 높아 회수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매출채권을 활용한 팩토링(채권담보 금융) 등을 통해 차입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약 100억 원 규모의 차입을 기반으로 연 매출 약 400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입 여력이 확대될 경우 연 매출은 약 1,0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엔젠파마' 유통 사업의 내재화는 동시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수익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재무구조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본업인 NGS 기반 정밀진단 사업의 중장기 성장성과 맞물려, 회사 전반의 수익성 제고와 기업가치 상승을 뒷받침해줄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리뷰

2025년 엔젠파마 인수 효과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이 맞물리며 매출 급증과 함께 영업적자 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엔젠바이오는 2024년의 실적 부진을 딛고 2025년 들어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국면에 진입했는데, 2024년 매출액은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했었으나, 미국 CLIA 랩 인수 관련 일회성 비용과 고정비 부담 확대로 영업손실 161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진한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동사는 2024년 하반기부터 비핵심 자산 매각, 수익성이 낮은 사업 정리, 조직 슬림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비용 구조 개선에 착수했고, 이러한 선제적 조정이 2025년 실적 개선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5년 연결 매출액은 약 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9% 증가하며 가파른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매출 급증의 주요 요인은 기존 NGS 기반 정밀진단 사업부문의 견조한 성장과 더불어, 2025년 9월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엔젠파마'(구 누리팜)의 매출이 연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5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 정밀진단 사업의 성장에 더해 '엔젠파마'의 9월 한 달치 매출(39억 원)이 반영된 결과다.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92.7억 원(+86.3% YoY)이며, 4분기에는 '엔젠파마'의 분기 전체 실적이 반영되면서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외형 성장에 따른 수익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64억 원이며, 연간 영업손실은 약 92억 원으로 전년(161억 원) 대비 약 43%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영업적자 상태는 지속되고 있으나, 매출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판관비 절감 등 비용 구조 합리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손익 구조는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손실은 6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는데, 이는 조직 슬림화를 통한 **선제적인 비용 통제와 운영 효율화에 따른 고정비용 감소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배주주 당기순손실 역시 약 110억 원으로 전년(126억원) 대비 손실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2025년 동사의 실적은 '엔젠파마' 인수를 통한 외형 성장과 강도 높은 비용 절감 전략이 맞물리며 전년 대비 현저한 개선세를 시현한 한 해로 평가해볼 수 있다.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엔젠파마 인수 효과와 정밀진단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 715억 원으로 급증하고, 비용 효율화까지 더해지며 영업적자 폭이 절반 이상 축소되는 '고성장 적자 축소' 전환 국면에 진입할 전망

동사는 2026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과 함께 수익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인데, **매출액은 715억 원(+240.5% YoY)**으로 추정되며, 대규모 외형 성장에 힘입어 영업적자 폭 역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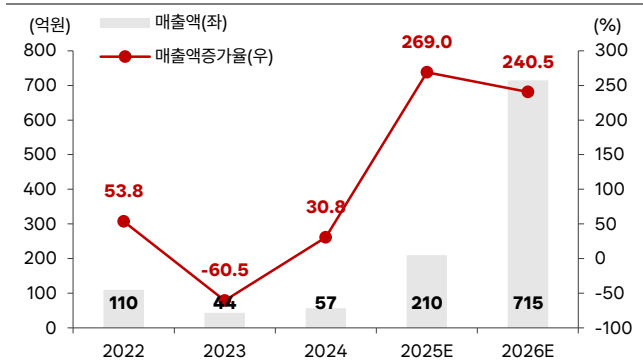
매출 성장은 자회사 '엔젠파마' 인수에 따른 의약품 유통 부문의 연간 실적이 처음으로 온기 반영되는 것이 주도할 전망이다. '엔젠파마'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과 문전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해온 도매유통 기업으로, 평균 연 매출 약 4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차입 여력 확대 시 최대 800억 원까지도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첫해인 점을 감안해 **2026년 유통 부문 매출을 약 600억 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이는 전년 대비 신규로 편입되는 대규모 매출원으로, '엔젠파마'의 병원 영업채널과 공급망이 더해지며 매출 기반의 안정성과 규모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사업인 NGS 정밀진단 부문 역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2026년 매출은 약 115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암 유전체 진단 패널 공급 확대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의 NGAS 2.0 유료화 본격화, 서울아산병원의 NGLIS 구축 완료 및 독점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이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도 자회사 'TOPLAB'을 통한 기존 검사 서비스 매출 확대와 함께 동남아, 중동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추가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이처럼 유통 부문과 정밀진단 부문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2026년 전체 매출의 양대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예상되는데, 매출 급증에 따라 매출총이익은 82억 원으로 전년(3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유통 부문의 구조적 특성상 매출총이익률은 11.5%로 전년(18.1%)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관비는 125억 원으로 전년(13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조직 슬림화 전략에 더불어 '엔젠파마'와의 조직 통합에 따른 중복 비용 절감, 운영 효율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손익 구조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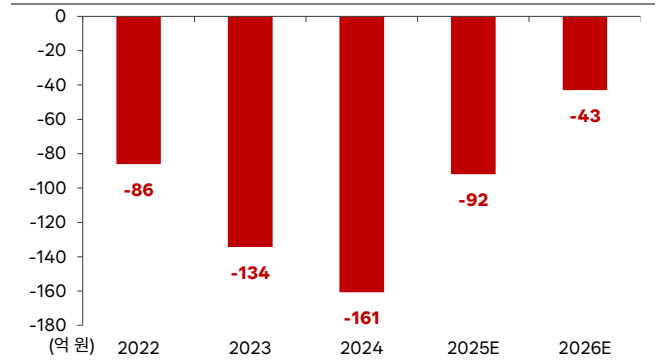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26년 영업손실은 -43억 원**으로 전년(-92억 원) 대비 절반 이상 축소될 전망이며, **지배주주 당기순손실 적자 폭 역시 110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처럼 2026년은 '엔젠파마' 인수 효과에 따른 외형 급성장과 비용 구조 효율화가 맞물리며, 실적 구조가 **'고성장-적자 축소'** 국면으로 본격적인 전환점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유통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창출과 정밀진단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2027년부터는 흑자전환 가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추이(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4	57	210	715
증가율 (%)	-60.5	30.8	269.0	240.5
정밀진단 사업	44	57	71	115
의약품 등 유통 사업	0	0	139	600
매출원가	45	35	172	633
매출원가율 (%)	102.3	61.4	81.9	88.5
판매관리비	133	182	130	125
판매관리비율(%)	302.3	319.3	61.9	17.5
영업이익	-134	-161	-92	-43
영업이익률 (%)	-308.6	-282.5	-43.8	-6.0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세전계속사업이익	-132	-143	-122	-71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당기순이익	-129	-139	-121	-71
순이익률 (%)	-295.6	-245.0	-57.7	-9.9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28	-126	-110	-64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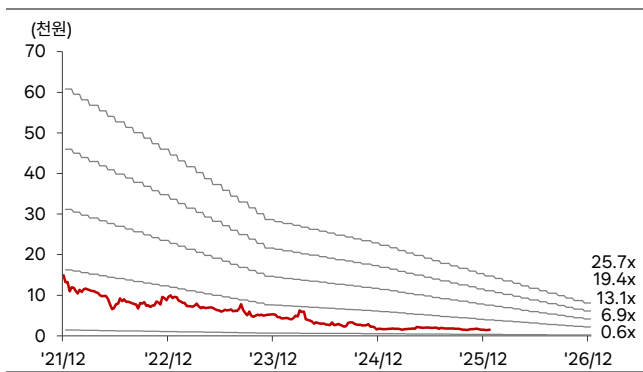
2026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사업 전환과 실적 개선이 숫자로 가시화되기 시작함에도, PSR&PBR 기준으로는 역사적 밴드 대비 보수적으로 평가받고 있어 성장 전환 국면에서 단계적인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 보유

엔젠바이오의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엔젠파마 인수에 따른 재무구조 안정화와 NGS 정밀진단 패널에서 확장되는 플랫폼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첫 해라는 점에서, 아직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기 이전의 구간으로 해석된다. 즉, 동사의 구조적 사업 전환과 실적 개선 흐름이 이제 막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단계로, 밸류에이션은 '선반영 구간'이 아니라 '사후 추인 단계'에 가까운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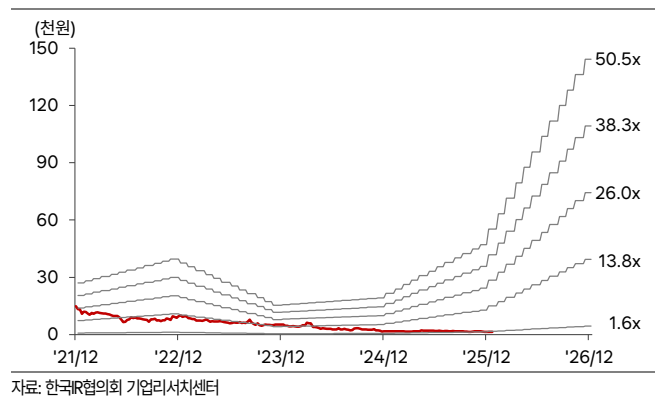
2025 & 2026년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한 멀티플은 **2025년 PBR 2.4x, PSR 1.6x, 2026년 PBR 5.5x, PSR 0.7x**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6년 PSR 0.7x는 동사의 최근 4년간의 역사적 PSR 밴드(3.6x~30.3x, 평균 10.8x)의 최저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매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주가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엔젠파마' 인수 효과로 유통 부문 매출이 대규모로 반영되고, 동시에 NGS 정밀진단 부문 역시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할 경우, 외형 대비 시가총액의 상대적 부담은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25 & 2026년 PBR은 각각 2.4x, 5.5x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의 역사적 PBR 밴드(1.4x~6.4x, 평균 3.2x)와 비교할 때 2025년은 평균 대비 할인 구간에 위치해 있고, 2026년 역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상단 수준에 근접하는 데 그쳐, 성장 전환 국면을 감안하면 여전히 보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NGS 정밀진단 패널을 넘어 확장되는 데이터 플랫폼 전략과 '엔젠파마' 인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기 이전의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적자 구조가 이어지겠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적자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이후 흑자전환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전형적인 전환기에 진입한 기업으로, 향후 기업가치는 재무구조 안정화와 함께 정밀진단 본업이 만들어내는 성장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기대된다.

엔젠바이오 PBR 밴드 차트



엔젠바이오 PSR 밴드 차트




리스크 요인

**정밀진단 (NGS) 플랫폼 및
의약품 유통을 양축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나, 단기적으로는
적자 구조 개선과 자본건전성
관리가 핵심 리스크이며, 향후
플랫폼 성과 가시화 여부가
재평가의 관건**

엔젠바이오는 정밀진단과 의약품 유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과 사업 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가 계획대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적자 구조의 개선 시점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동사는 '엔젠파마' 지분 인수를 통해 의약품 유통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했고, 이는 외형 성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향후 대형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적 시너지 가능성도 기대된다. 다만 현재 연간 100억 원 내외의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형 성장과 함께 손익 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밀진단 플랫폼 산업 특성상 레퍼런스 축적에 따라 매출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이 과정에서 고정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턱어라운드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기존에 영위하지 않던 의약품 유통 사업을 새롭게 편입한 만큼,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무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검증도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정밀진단과 유통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동사가 추진 중인 데이터 라이선싱 및 플랫폼 사업은 2028년부터 G-Hub 구축으로 본격화될 예정으로, 사업 다각화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자본 건전성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 회사는 소프트웨어 매출 확대와 '엔젠파마' 인수 효과 등을 통해 손실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추정치 기준으로 2026년 자본잠식률이 50%를 상회하며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사는 2025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가 금년도에 실제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이를 구조적인 불안정성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상장 초기 단계의 바이오 기업들이 사업 고도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재무적 변곡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고, 향후 대형병원 네트워크와 의료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을 넘어 추가적인 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동사의 리스크는 사업 다각화와 성장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재무적 부담에 가까운데, 실제로 동사는 자회사 매각, 인력 구조 조정 등 강도 높은 비용 효율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 예정된 대형병원 NGAS 유료화와 국내 Top 종합병원 NGLIS 구축과 상용화가 실적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와 동시에 금년도부터는 의약품 유통 사업을 통해 외형 하방을 일정 부분 방어하고 있는 만큼, 정밀진단 사업의 점진적인 성과들이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중단기적으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10	44	57	210	715
증가율(%)	53.8	-60.5	30.8	269.0	240.5
매출원가	69	45	35	172	633
매출원가율(%)	62.7	102.3	61.4	81.9	88.5
매출총이익	41	-1	21	38	82
매출이익률(%)	37.6	-3.2	37.7	18.1	11.5
판매관리비	127	133	182	130	125
판매비율(%)	115.5	302.3	319.3	61.9	17.5
EBITDA	-73	-121	-131	-61	-10
EBITDA 이익률(%)	-66.5	-277.7	-230.9	-29.2	-1.4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86	-134	-161	-92	-43
영업이익률(%)	-78.1	-308.6	-282.5	-43.8	-6.0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12	2	18	-30	-28
금융수익	16	48	63	6	6
금융비용	28	44	43	37	35
기타영업외손익	-0	-1	-2	1	1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98	-132	-143	-122	-71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0	-3	-3	-1	-0
계속사업이익	-98	-129	-139	-121	-7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98	-129	-139	-121	-71
당기순이익률(%)	-89.3	-295.6	-245.0	-57.7	-9.9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자배주주지분 손이익	-98	-128	-126	-110	-64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8	-92	-124	-141	-2
당기순이익	-98	-129	-139	-121	-71
유형자산 상각비	11	12	26	28	29
무형자산 상각비	2	2	3	3	4
외환손익	1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2	-2	-3	-56	31
기타	28	25	-11	5	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	41	-60	-38	-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39	-51	15	-26	4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0	-4	-1	-1	-1
기타	-23	96	-74	-11	-1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58	-6	36	173	63
차입금의 증가(감소)	-45	-5	26	80	63
사채의증가(감소)	199	0	-126	0	0
자본의 증가	0	0	125	99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4	-1	11	-6	0
기타현금흐름	0	0	0	-39	-32
현금의증가(감소)	86	-56	-148	-45	20
기초현금	163	249	193	44	-0
기말현금	249	193	44	-0	19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431	270	117	218	290
현금성자산	249	193	44	-0	20
단기투자자산	137	47	42	51	53
매출채권	11	8	7	148	194
재고자산	30	17	21	17	20
기타유동자산	4	5	3	2	3
비유동자산	131	153	213	245	246
유형자산	81	90	94	104	106
무형자산	16	19	78	74	77
투자자산	23	35	13	39	36
기타비유동자산	11	9	28	28	27
자산총계	562	423	329	463	536
유동부채	290	238	125	295	435
단기차입금	25	20	46	139	204
매입채무	1	2	4	83	159
기타유동부채	264	216	75	73	72
비유동부채	18	22	27	17	21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8	22	27	17	21
부채총계	308	260	152	313	457
자배주주지분	253	163	170	154	90
자본금	125	129	198	250	250
자본잉여금	526	551	609	656	656
자본조정 등	11	10	10	5	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12	16	16	16
이익잉여금	-409	-539	-663	-773	-837
자본총계	253	162	177	150	79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N/A	N/A	N/A	N/A	N/A
P/B(배)	4.9	4.7	1.9	2.4	5.5
P/S(배)	11.2	17.3	4.3	1.6	0.7
EV/EBITDA(배)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695	-892	-845	-487	-257
BPS(원)	1,789	1,120	857	614	358
SPS(원)	782	304	381	932	2,856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33.0	-61.4	-75.9	-67.8	-52.8
ROA	-19.7	-26.1	-37.1	-30.6	-14.2
ROIC	-70.2	-99.6	-99.2	-41.9	-18.0
안정성(%)					
유동비율	148.5	113.5	93.2	73.7	66.5
부채비율	121.8	160.5	86.1	209.0	579.6
순차입금비율	-39.7	-5.9	20.0	100.7	243.5
이자보상배율	-12.9	-7.5	-8.9	-7.7	-3.1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2	0.1	0.2	0.5	1.4
매출채권회전율	8.2	4.5	7.6	2.7	4.2
재고자산회전율	5.3	1.9	3.0	11.1	38.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엔젠바이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1.21	엔젠바이오(354200)-NGS에서 플랫폼으로: 데이터, AI, 유통을 품은 구조적 전환
2023.07.20	엔젠바이오(354200)-NGS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